

아픈 사람과 가족에게 전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



◀ 30

병원에 입원을 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 입원 환자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고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같은 병을 앓는 혹은 앓았던 환자나 가족일런지도 모른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할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 KBS 2라디오에서는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의 시연들이 조용한 음악과 함께 전해진다.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AM 639 또는 603 K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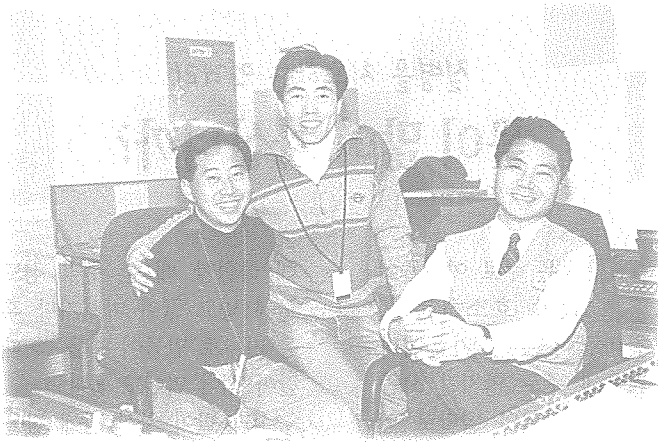
지난 해 10월 13일 0시에 첫 방송을 시작한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는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환자의 간호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 과거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한 사람,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름 그대로 가슴 뭉클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이다.

이 프로그램은 편안하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신청음악과 청취자의 투병 체험담, 간병 일기 등의 편지사연을 전하고 때로는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잊을 수 없는 환자 시연도 소개된다. 그리고 투병 생활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생활·재미있는 인체기행·장기

기증·의료보험 등 꽤 쓸만한 정보를 알려 준다.

'범효춘의……'를 이끌어 가는 세 사람, 한승교 PD, 최두형 작가, 그리고 MC 범효춘씨를 말하자면, 지금 커다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전할 수가 있을까.

청춘 남녀의 사랑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즐겁고 가볍게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아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왠지 무겁고 우울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이 방송을 접한다면,



▲ 녹음실에서 잠깐 포즈. 오른쪽부터 한승교 PD, 성우 석원희 씨, 최두형 작가.



▲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 제작진.

그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아픈 사람들의 벗이 되기 위해 세 사람은 스스로 병자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상담원이 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움부즈맨 방송이다. '1시간 방송 중 30분을 움부즈맨 방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의 청취소감을 듣고, 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또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합니다. '범효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환우(患者)들이, 방송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위안을 받는 방송,

그야말로 환우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방송이어야 합니다.'

한승교 PD의 설명이다. '범효춘……'이 불과 두 달여 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작자들의 이런 방침과 열정, 또 진행자인 범효춘씨의 푸근한 목소리와 넓고 진솔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12월 30일 자정에는 아주 특별한 방송이 있었다. 희망찬 새해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아침 병원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아간 연말 특집 공개방송이었다.

녹화가 있었던 23일 서울중앙병

원에서는, 특별 출연한 가수 김종환·강산에·신효범, 입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범효춘……' 제작팀이 하나가 되어 전국의 환우들을 위한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환자·간병인·의사·간호사들이 육성으로 낭독한 사연을 음악에 실어 보낸 그날의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 주었다.

새벽을 맞는 것은 하루의 희망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좋다. 늦은 밤 몸이 아파서 혹은 아픈 사람을 간호하느라 몸을 뒤척이는 분들에게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의 청취를 권하고 싶다. 거기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새 하루의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은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는데, '범효춘……'을 들으면 빠른 쾌유의 길이 보인다. ㉞

환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투병기·간병기·의료인의 환자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전국의 환우들에게 빠른 쾌유를 위한 소중한 메시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등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5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 담당자 앞(FAX 02-781-3719)